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다일공동체

2015. 03+04



Salamat Po!  
감사합니다!

DAIL



사랑하고 존경하는 다일의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늘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가고 기다리던 따스한 봄기운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3월 입니다.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봄이 오면 사랑하는님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고픈 마음이 들지요. 저도 마음을 같이하는 다일의 벗님들과 네팔에 포카라 다일교회를 설립하기 위해 함께 비전트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4월 8일 시작된 뽕퍼를 이제 포카라 다일교회의 초대 담임목사이신 꾸샬 선교사님이 담당하게 되었고, 2015년 3월 8일 드디어 네팔 포카라 지역의 영혼구원과 복음전도를 위해 포카라 다일교회가 시작됩니다. 매 주일마다, 네팔어 예배, 한국어 예배, 영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봄소식과 더불어 기쁨의 소식을 함께 전할 수 있어서 더욱 감사가 넘치는 3월입니다.

따스한 봄 별보다, 더 따스한 후원회원님들의 마음이 있기에 이렇게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전세계의 사명 실현지에서 마음껏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 실천하는 후원회원님들께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포카라 다일교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사랑의 손길을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 청량리에서 시작된 작은 물결이 끊이지 않고 세상을 움직이는 큰 파도가 되어지도록 뜨겁게 꾸준히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밥퍼는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으로 “이 땅에 밥 굶는 이 없을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2015년 3월에

작은 형제, **취** 임드 올림



02



08



10

c.o.v.e.e.r.s.t.o.r.y

### 난생처음 운동화를

매일같이 낡은 조리만 신고 다니거나 학교를 안갈 땐 아예 맨발로 다니던 아이들에게 예쁜 양말과 운동화가 생겼습니다. 새해 첫 달, 일대일 아동결연 후원회원분들의 사랑으로 아이들에게 예쁜 양말과 운동화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처음 받아 든 양말과 운동화를 잘 신지 못해 찢절매는 모습이 어찌나 귀여운지... 난생처음 운동화를 신어본 아이들이 기뻐서 흐르르 뛰어와 인사합니다.

“살라맛 뽀~ 헤수스~”  
“감사합니다~ 예수님~”  
“땡큐~ 후원회원님~”

## CONTENTS

- 02 물은 생명입니다
- 04 맛있는 물-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물퍼사업
- 06 밥퍼할배의 인생반전
- 08 그레이스 트리오 인터뷰
- 10 영성수련 소감문
- 13 마음을 위로해 주는 시
- 14 다일의 국내외 현장이야기
- 22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24 신규 후원감사
- 26 후원안내
- 28 생살이운동 참여하기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편집위원** | 김도한, 이혜진, 최별  
**사진** | 김도한  
**디자인, 인쇄** | 틀니 디자인 어소시에이츠  
**발행일** | 2015년 3월

**발행처** | 다일복지재단  
**주소** |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전화**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 물은 생명입니다

**이지현**

다일복지재단 해외사업실 실장



한 톨의 곡식에는 우주의 무게가 있고 한 방울의 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모두가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갈증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가 아닌 미디어에서 보여지는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멀리 아프리카에는 적은 강수량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수량이 많은 동양 최대의 호수, 톤레삽이 있는 캄보디아가 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톤레삽은 캄보디아인들의 주된 식수원이자 2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보금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수를 터전삼아 살다보니 가족의 분비물이나 사람들이 사용한 오폐수 등이 그대로 호수로 흘러들어가 식수로 사용되는 물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시설도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시설 역시 열악하기에 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안전한 식수가 늘 부족하고 수질 오염으로 인한 각종 기형, 장애, 피부병 등 많은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 거리의 우물에 물을 길러 가야만 합니다. 한번에 필요한 양만큼 나를 수 없어 여러 번 반복하여 물을 나르며 많은 시간을 물과 씨름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더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씻을 수 있도록 물페(물 지원 사업)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샘물이 샘솟는 다일의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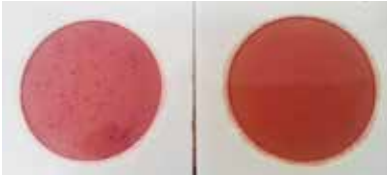
# The Water is Life



# 캄보디아 아이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밥퍼, 빵퍼 그리고 물퍼

다일공동체 원수

다일공동체 처리수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 몸이 건강하려면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하지만 캄보디아의 물은 석회질과 철분이 과다 함유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물이 아닌 오염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항아리에 빗물을 받아쓰거나 집 주변에 삽으로 땅을 파서 웅덩이를 만들어 고인 물을 생활용수와 식수로 사용합니다. 이런 물은 모기와 여러 기생충의 서식

## 고세인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대리

지가 되어 계속 마시게 되어 설사, 장티푸스, 콜레라 같은 질병과 수인성 질환에 감염되기 쉽고 바이러스를 통한 각종 합병증을 불러일으킵니다. 캄보디아 대부분의 지역은 상수도 시설이 없고 파이프 관을 통해 수도물을 공급받는 곳은 수도 프놈펜 지역의 40%, 시아누크빌 인구의 50%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농촌 지역은 15%에 불과 합니다. 캄보디아 다일공동체가 있는 씨엠립 센터 주변에도 상수도 시설이 전무하여 깊은 곳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 올려사용하지만 완벽히 깨끗한 물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500인분의 밥을 하고 빵을 만들려면 하루에도 몇 백 리터의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합니다. 물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밥을 지을 때 뿐만 아니라, 식재료를 씻고 조리하고 밥을 먹고 난 후 마실 물까지 총당하자면 매일 같이 물을 구입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와 MOU체결

이러한 소식을 접한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는 말 그대로





정수된 물을 떠가는 아이들

과학기술자 분들이 국가에 구애받지 않고 어려운 나라에 적정기술을 이용한 기술을 보급해 주시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적정기술이란, 지구상에서 10%도 못 누리는 비싸고 복잡한 신기술이 아닌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이 적절한 가격에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에서는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 정수처리 시스템을 설치해 주셨는데 1차적으로 모래와 자갈을 이용한 친환경 필터인 BSF(Bio Sand Filter)로 전처리 시설을 거치고 4중 필터링을 통해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일복지재단과의 MOU 체결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수설비를 증설해 주시고 꼼꼼한 수질검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는 결과표를 받아 안심하고 마음껏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인 필터 공급과 수질검사로 협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 맛있는 물!

처음에는 센터 펌프 물을 정수해서 먹는다고 하니 현지인 스텝들이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정수한 물을 설치해주신 ‘국경없는 과학기술자회’분들이 먼저 마시고 한국인 스텝들

이 따라 마시고 정수결과까지 보여주니 현지 스텝들도 이제는 물이 아주 맛있다고 말합니다. 맛있고 깨끗한 물을 계속 마실 수 있게 되니 이제 매일같이 밥 먹으러 오는 아이들이 꼭 챙겨오는 물건이 생겼습니다. 바로 생수 병입니다. 예전에는 밥퍼에 와서 밥을 먹고 식수 통에 있는 물만 먹고 가져갈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마시고 원하는 만큼 가져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정수처리를 통해 2,000리터의 물을 받아 저장해 두었다가 센터에 찾아오는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하루 한 시간 정해진 시간에 무료로 깨끗한 물을 나누는 ‘물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같이 먼 거리에서 한끼의 식사를 위해 걸어오는 아이들에게 나누는 것들은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나누고 싶은 것이 다일공동체를 섬기는 모든 스텝들의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마음껏 나눌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물 마시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흐뭇한 아빠미소가 지어집니다.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나누어 보다 더 건강하게 자라 나갈 소망해 봅니다.

interview

# 30년 만에 주민등록 되찾고 '밥퍼 할배'로 인생 반전



### 이길우

한겨레뉴스 선임기자 nihao@hani.co.kr



### 노숙자 출신 '밥퍼' 봉사자 이차술씨

농약을 마셨다. 자살하려고 먹었다. 겨우 12살. 어린 소년에게 거친 세상은 살아갈 용기를 빼앗아 가버렸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깜깜했다. 친구들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 무럭무럭 자랄 나이였으나, 그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다. 하지만 목숨은 질겼다. 갈기던 어른이 골목길 한 구석에서 흰 거품을 물며 죽어가던 아이를 업고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다. 눈을 떠보니 병상이었다. 더욱 절망했다. 죽지도 못 하더니... 아버지는 사람의 목숨을 해쳐 옥살이를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생활고를 못이겨 어린 형제를 버리고 달아났다.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다. '될대로 되라' 식으로 살았다. 부랑자로 노숙자였다. 주민등록도 30년 전에 말소됐다. 국가나 사회로부터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 불우했던 소년은 지금 흰 수염을 기른 채 불우한 이웃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죽음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평생을 노숙자로 살아온 이차술(58·사진)씨는 요즘 새벽마다 동네 쓰레기를 줍고 빗질을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버지는 감옥 가고 어머니는 가솔 / 12살때 농약 먹고 죽으려다 살아나 / 세상 등지고 한평생 거리 부랑아로 / 무료급식받아온 다  
일공동체와 인연 / 최일도 목사 주선으로 쪽방생활 10년 / 세례 받고 노점상하며 '배식' 봉사도

이씨가 사는 곳은 아직도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있는 청량리역 뒷편. 20대부터 농마를 줍고, 싸움질을 하며 살아온 동네다. 몸을 팔아 살아가는 여인들이 우글거렸고, 전국에서 거지들이 모여들었다. 지난 4일 첫번째 인터뷰는 단 3분만에 끝났다. 그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 이야기 못해요...

과거가 아파요. 그냥 잊고 살고 싶어요." 어깨를 들썩이며 돌아서는 그를 잡을 수 없었다. 유달리 험났던 그의 지난 날은 되새기는 것조차 엄청난 고통인 듯 했다. 나이에 비해 10년은 더 들어보이는 그의 주름진 얼굴에 성한 이가 거의 없다.



젊은 시절 함께 거리를 떠돌던 친구들은 대부분 일찍 죽었다. 추운 겨울엔 얼어 죽었고, 감기만 걸려도 저항력이 약해 쉽게 죽었다. 그들은 대부분 게을렀다. 이씨 역시 체질은 약했지만 부지런한 편이어서 병엔 걸리지 않았다. 지붕도 없이 철거하다가 중단한 듯한 폐가에서 한 겨울을 버텨야 했던 시절이었다. 비교적 건강했던 그였으나 지난해 10월께 한 많은 삶을 마감할 뻔 했다. 뇌의 핏줄이 팽창해 큰 수술을 받아야 했다. 수술비가 1천만원 필요했다. 그래서 지난 30년동안 말소됐던 주민등록을 되살렸다. 서울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병원에서는 애초 가망이 없다고 예상했으나, 다행히 수술 뒤 아무런 후유증이 없다. 그는 10년 전부터 최일도 '밥퍼' 목사가 마련해 준 쪽방에서 살고 있다. 그 이전까지 무려 17년을 노숙자로 살았다. 거리에서 만난 최 목사는 지금껏 27년간 그를 보살펴 준 은인이다.

이씨는 집 주변뿐 아니라 동네를 청소하고, 다일공동체로 가서 무료 급식 자원봉사를 한다. 청소도 하고 배식도 한다. 최 목사가 청량리에서 노숙자들에게 라면을 끓여주며 처음 봉사를 할 때 만난 이씨는 지난해까지 동갑인 최 목사에게 형님 대접을 받았다. 외모가 형님뻘이었기 때문이다. 야간 중학을 다닌 것이 학력의 전부인 그는 젊은 시절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는 누구에게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

그냥 '만우 할배'로 불렸다. 누구도 그의 본명을 알지 못했다. 지난해 세례를 받을 때도 가명을 썼다.

하지만 요즘 그는 오전에 다일공동체에서 봉사를 한 뒤엔 청량리역 근처에서 노점상을 한다. 신발이나 옷을 도매상보다 싸게 판다. 벌이는 시원치 않으나 조금이라도 돈을 번다는 생각에 신이 난다. 여자 친구도 생겼다. 비록 몸이 편치 않아 지금은 요양원에 들어가 있으나 사랑을 느껴본 유일한 여인이다. 무료 급식을 받으며 만난 '여친'은 나이는 이씨보다 많으나 정을 나누며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다. 여친은 주민등록이 살아 있어 받을 수 있었던 생활보조금을 전액 불우이웃을 위해 써왔다고 한다. 이씨는 7일 오전 새로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손에 넣었다. 그동안 무적자로, 사회에서 버림받았다는 배신감을 안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다르다. 30년만에 어엿한 서울 시민이 된 것이다. "그동안 주민등록도 없이 살아온 이유는 국가에 어떤 권리도 행사하지 않고, 의무도 없이 조용히 살다가 그냥 죽고 싶어서 그랬지요."

이씨는 이제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돼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는다. "그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저처럼 어릴 때 배우지 못한 어린이들을 위한 학비로 쓰고 싶어요. 교회에 십일조 헌금도 해야죠." '만우 할배'에서 '이차술'로 거듭 태어난 이씨가 환하게 웃었다.



작년 10월 24일 태안문화예술회관에서 그레이스 트리오의 창단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공연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하루하루 간신히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아동과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음악활동은 물론, 21세기 사회의 장기적인 문화 예술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음악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그레이스 트리오를 만나보았습니다.

interview

# G.R.A.C.E T.R.I.O



음악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요!

그레이스 트리오 인터뷰

이혜진

다일복지재단 홍보전산실 간사



### >>> 그레이스 트리오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해 창단한 트리오앙상블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재능으로 아름다운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 및 전세계의 이웃을 돕고 아픈 자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줄 수 있다면 힘차게 음악을 연주할 뿐입니다. 그레이스 트리오에는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 천사장과 같이 세 음악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는 평택 합정감리교회의 상임반주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사랑이 넘치는 분이 며 바이올리니스트는 중앙대 음대 현악전공 전체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으로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분이고, 첼리스트는 현재 이화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천사처럼 고운 아티스트입니다.

### >>> 그레이스 트리오를 창단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학창시절부터 지역 연합예배 특송을 담당했던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귀한 무대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일과 육아를 함께 병행하며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 세 사람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의미 있는 음악회를 만들고자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 >>> 연주회를 하면서 가장 뜻 깊었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밀려드는 많은 일들을 연습과 기도로 준비해야 했지만 사람인지라 걱정이 앞서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드러나면서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럴 때마다 더 좋은 것과 방법으로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들에 감사했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 >>> 연주회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땅 위에 부모없이 혹은 환경이 열악하여 어려움 가운데에 놓인 아이들을 생각하며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라는 내 아이를 볼 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관심과 후원을 통해 너희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전해주고 싶어서 수익금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 >>> 다일공동체에 후원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다일공동체에는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현신 부원장님이 탄자니아로 파견되어 힘써 일하고 계십니다. 탄자니아 다일공동체의 변창재 원장님과 이현신 부원장님의 사역으로 채석장에서 돌을 깨던 어린이들이 센터에 와서 배를 채우고, 공부를 하고 학교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며 그분들의 큰 헌신과 사랑에 조금이나마 마음을 담아 응원하고자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 >>> 그레이스 트리오의 앞으로의 나눔 계획을 알려주세요.

요즘 시대는 사실 주변을 돌아볼 마음의 여유도 경제적 여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시내가 모여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를 향하듯이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레이스 트리오는 어디든 가서 음악을 들려주고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전하고 싶습니다.



## 영성수련 1단계 아름다운 세상 찾기 소감문

**박지연**

160기 161기(하늘)

20살이 넘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나에게 기독교 문화는 아직도 완전히 편하지는 않았다. 평소 존경하던 교수님과 상담을 하다 “아세 찾기에 가는 것이 어떨겠니?”라는 말씀을 해주셨다. 아직까지 기독교 문화는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여 지기도 했지만 1단계는 기독교인 뿐만 아니라 비기독교인도 참여 할 수 있다는 말씀에 가겠다고 대답을 했다. 교수님께서서는 경남 창원에서 가야 하는 나를 대구에서 픽업해서 설곡산까지 데려다 주셨다. 교수님께서 운전하시는 차를 타고 함께 설곡산으로 가는 동안 도대체 설곡산에는 무엇이 있길래? 라는 궁금증이 들었다. 아세찾기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등의 질문 형식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또한 침묵 속에 수련이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을을 보며 묵상하던 순간이 떠오른다. 12월의 설곡

산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노을을 보며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에 눈 덮인 산자락 사이로 붉은 노을이 지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파란색과 붉은색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노을이 지는 반대편 하늘인 동쪽 하늘을 바라보게 되었다. 동쪽 하늘은 거무튀튀한 하늘색을 띠고 있었다. 그 하늘을 보며 ‘뭐야 이쪽 하늘은 색이 별로 아름답지 않은데? 거무튀튀한 하늘색이라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 순간 나의 머릿속에 ‘지연아, 너도 너 자신의 한 면만 보고 있지 않았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내 자신의 상처와 아픔만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왔다. 나에게도 저 노을 지는 하늘처럼 아름다운 면이 있을 텐데, 나의 한쪽 면만 보고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하늘을 보며 그 동안 나를 확대하며 살아왔



던 날들에 대한 반성과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또한 거무튀튀한 동쪽 하늘을 보며 '이 하늘 또한 밤하늘의 별을 반짝이기 위해 준비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하니 아름답지 않은 것이었고, 밤하늘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 또한 아름다운 색깔이었다. 화가 났던 순간이 언제인지 돌아보며 내면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썼다. 1층 소강당 구석에 고개를 숙이고 앉아서 내 마음과 대화를 시도했다. 그때 내 마음은 '왜 이제야 왔어... 나 그 동안 많이 힘들었어'라는 말을 했다. 끊임없이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미안해, 이제야 와서 미안해, 모르는 척해서 미안해, 이제 안 그렇게' 수련 기간 동안 자꾸만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했다. 마음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마음의 소리가 있기는 한 건지 의심했다. 그러나 그때 1층 소강당 구석에서 나

는 그 동안 내가 무시하고 억압하고 가뒀었던 내 마음과 만날 수 있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 그 구절을 보며 에이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 이 세상에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했었다. 1단계를 통해 일 속에는 화가 없다는 것과 내가 화를 심으면 화가 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유리병 속에 갇혀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 했었다. 나에게 친절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왜곡하고 비틀게 바라봤었다. 남들을 정죄하고 내가 옳고 당신들이 틀렸다고 하며 살아온 세상은 외롭고 쓸쓸했다. 아세창기를 다녀온 후 사이가 서먹했던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과를 했다. 그 동안 나는 나만의 세상에 갇혀 모든 것이 다 비틀게 보



였었다고, 너희가 내밀어 줬던 손도 왜곡해서 봤었다고,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는 내용의 문자였다. 문자를 보내며 이 친구들이 내 진심을 왜곡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들었지만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에 붙잡고 용기를 냈다. 다행히 친구들은 내 진심을 받아 주었고, 오히려 본인들이 더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왔다. 부모님께도 큰절 올리며 그 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랑해요. 라는 말씀을 드렸다. 부모님은 나를 꼭 안아주시며 '네가 잘못된 것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났다. 부모님과 동생의 발을 씻겨주며 '고마워, 사랑해' 라는 말을 전했다. 화해와 일치를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외롭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내 생각이 깨지고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어두운 방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나는 수련회를 통해 일어나서 그 방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겼다. 정말 일체 은혜 감사뿐이다! 아름다운 세상 찾기 후기를 쓰다 보니 다시금 영성 생활 수련회 생각이 난다. 4박 5일의 시간 동안 시계를 대신했던 징 소리와 노을 지던 하늘, 12월의 설곡산이 그림다. 1단계 영성 수련회를 갔다 온 뒤 주위 사람들에게 강력 추천하고 다닌다. 꼭 가보라고, 설곡산에 뭐가 있긴 있다고.

영혼을 위로해주는 시

시 제공 : 최별 (Byeol Ellie Choi)

## >>> 기탄잘리 노래로 바치는 제물

제 가슴 속에 자리 잡은  
빈곤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쁨과 슬픔을 수월하게 건널 수 있는  
힘을 저에게 주세요.

제 사랑이 베풀 속에서 열매 맺도록  
힘을 주세요.

결코 불쌍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고  
거만한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도록  
힘을 주세요.

제 마음이 나날의 사소한 일들을  
초월할 힘을 주세요.

제 힘이 당신 뜻에 사랑으로 굴복할  
그 힘을 제게 주세요.



1



NEPAL

네팔 다일공동체

**최홍** 네팔 다일공동체 원장

### 네팔을 가슴에 품은 '네포' 순천대학교 봉사단

네팔에는 세계의 지붕이라고 일컫는 히말라야가 있기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보기위해 방문합니다. 또한 히말라야를 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는 발걸음도 있습니다. 1월 12일부터 23일까지 순천대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22명이 네팔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 '네포'이라는 팀을 구성해서 네팔의 빈민촌에 찾았습니다.

“곱디곱게 자란 학생들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무색하게 얼마나 억척스럽게 굵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척

척해 내는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네팔을 오기 전 한국에서부터 청소년센터를 오가며 한 달 이상 봉사활동 훈련을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 친환경강둑

순천대 네포 팀은 먼저 무너진 강둑부터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을 비롯해서 교직원들과 남학생, 여학생 가릴 것 없이 온 몸을 던져 땀새 나고 더러운 강에 들어갔습니다. 굵은 대나무로 지지대를 세우고, 길게 가른 나무를 가로와 세로로 엮어서 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





1. 무너진 강둑을 나무로 엮어 만드는 작업
2. 발표회에서 태권도를 선보이는 순천대학교 봉사단
3. 네팔 호프스쿨 앞에서 단체사진

일주일엔 힘들었지만 꿈처럼 지나갔습니다. 특별히 네품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발표회 시간에는 학부모와 호프스쿨에 다니지 않는 빈민촌 아이들을 모두 초대하여 공연을 했는데 금새 마을 잔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비전센터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은 힌두교인, 기독교인, 무신론자와 상관 없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서로 얼싸안고 기쁨과 감사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시간이 얼마나 깊고 컸던지 서로 잡은 손을 쉽게 놓지 못했습니다.

### 네팔로 오라!

봉사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배움의 시간이다. 사랑으로 하나된 나눔은 두고두고 꺼내서 삶에 새로운 감동을 일으킬 수 있는 추억이다. 무엇보다도 찾아가면 이웃이 되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면 하나가 될 수 있는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지 않은가! 어디 순천대뿐이겠는가? 나이가 아닌 도전을 할 수 있는 젊음이 있으면 누구든지 시도해보라!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러한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는 네팔로 오라!

에는 흙을 담은 마대자루를 넣어서 무너진 곳을 든든하게 보강했는데 얼마나 튼튼하고 멋있는지 친환경 강둑이 작 품처럼 만들어졌습니다. 네품 팀원들이 일을 하기 시작하자 호프스쿨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린 아이들도 고사리 같은 손으로 흙을 담도록 자루를 붙들어 주고, 네품 팀과 함께 자루를 옮기며 모두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험하고 힘든 작업이었지만 학생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친환경 예술 강둑을 보고는 너무나 자랑스러워했습니다.

### 꿈같은 일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빈민촌 아이들에게 갓 지은 밥을 전해주고 설거지와 청소를 하며 오전에는 호프스쿨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노력봉사를 하면서 지냈던



## VIETNAM

베트남 다일공동체

**이종현** 베트남 다일공동체 원장

### 2015 베트남 밥퍼 아르디토(ARDITO) 콘서트

2015년 1월 25일 일요일 오후 4시, 호치민시 1군에 위치한 약빈 음악홀에서는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를 위한 자선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본 음악회는 호치민에 거주하는 한인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바이올린과 우크렐라 연주팀으로 구성된 '아르디토(ARDITO)'가 안혜선 선생님의 지도로 지난 1년간 갈고 닦은 연주 실력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오카리나를 연주하는 '소리썩' 회원 분들도 공연에 동참하며 공연의 수익금을 베트남 다일공동체의 밥퍼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하는 뜻 깊은 자리였습니다. 이번 공연은 호치민 한인 사회에서 시민 사회나 주변의 어려운 베트남 이웃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연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더욱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아르디토(ARDITO) 안혜선 선생님의 소감문

한국에서 음악선생으로 활동하던 중에 남편의 베트남 발령으로 가족들과 베트남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고 전공이 바이올린, 비올라, 우크렐라인 제자들이 실력향상과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자리에 모여 음악회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음악회 개최를 앞두고 단순한 음악회보다는 음악회를 통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생각하던 중 베트남 다일공동체 밥퍼를 알게 되었습니다. 밥퍼를 통해 베트남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작지만 힘이 되고자 하는 뜻에 제자들과 선생님들, 어머니들께서 동참해주셔서 티켓을 판매한 금액이 기



부금으로 모아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능기부에 대해 설명하니 연주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생겨 지도 선생으로서도 뿌듯하고 고마웠습니다. 아이들 중에는 재능기부 이외에 현장에서 직접 봉사에 참여하여 공연 이외에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음악선생으로서 연주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고 우리의 연주회를 통해 기쁨과 나눔의 기회를 아이들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총회

대.청.밥(대한민국 청소년 밥퍼) 총회를 가졌습니다. '대.청.밥'은 베트남 다일공동체 산하에 있는 단체로, 청소년들이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베트남을 남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지역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실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봉사단체입니다. 총회를 통해 2014년 한 해 동안 수고한 회장과 부회장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새로이 시작한 2015년 대.청.밥을 위해 수고할 새로운 회장단을 선출 하였습니다. 회장은 1명, 부회장은 2명으로 구성 되었는데 정지혜(RISS, 10학년) 부회장 심유진(한국학교, 10학년), 최다현(한국학교, 9학년)이 선출되었습니다.

ARDITO





## CAMBODIA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김학용**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원장



준비해온 의약품을 전달하는 분당 드림교회 봉사단

###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분당 드림교회

캄보디아 아이들을 사랑하여 매년 1월마다 캄보디아 다일 공동체를 방문하는 분당 드림교회 (담임목사: 강기호) 비전 트립팀이 올해도 어김없이 캄보디아에 오셨습니다.

3박 4일의 시간 동안 캄보디아의 어린아이들을 위해 밥퍼와 빵퍼, 머리 감겨주기 등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집도 지어주고 수상빈민촌의 이웃을 위해 배도 후원해주셨으며 현재 가장 필요한 의약품도 한 가득 선물로 주셨습니다.

### 가장특별한 선물

특히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본인 얼굴이 나온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사진은 가장 갖고 싶은 선물 중 하나입니다. 그 마음을 알고 밥퍼 봉사활동을 하며 찍은 아이들의 사진을 인화하여 아이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맛있게 밥을 먹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가 나온 사진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느 때보다 즐거워 보였습니다.

세심하게 아이들을 생각하며 한국에서부터 준비해 오신 선

물 덕분에 캄보디아 아이들은 행복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진마다 뒷면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문구도 적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당 드림교회 비전트립팀의 섬김으로 인해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지는 3박 4일간의 귀한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사진을 보고 있으니 캄보디아 아이들의 눈망울과 환한 모습은 세상의 어느 것보다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나온 사진을 받고 좋아하는 아이와 함께



## TANZANIA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 변창재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원장

#### 호프클래스, 아름다운 첫 열매

2014년 8월 1일, 최일도 목사님과 비전트립 4기 팀이 함께 개원예배를 드림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은 호프클래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드디어 첫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난한 환경으로, 부모의 의지 부족으로 학교에 한 번도 다니지 못했거나 중도에 그만둔 아이들. 그 중에 12명의 아이들이 정부 초등학교 테스트에 합격하여 그토록 원하던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 정부는 초등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학률은 97%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 'MEMKWA(멤콰)'입니다. 나이가 많은데 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아이들, 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하차한 아이들을 'MEMKWA(멤콰)' 클래스에 따로 모집을 하여 수준별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아이들을 수준에 맞는 학년으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호프클래스의 아이들도 대부분 'MEMKWA(멤콰)' 클래스에 들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요, 입이 귀에 걸렸습니니다. 깔끔한 교복으로 갈아 입고 나니 멋진 학생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특별히 호프클래스의 만형이었던 15살 피터와 14살 아부우는 입학이 늦은 만큼 환희와 감동은 더 큰 물결로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중물로 학교에 들어 가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학비와 교복과 학용품을 후원해 주신 윤정혜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1



1-2

1-1. 호프클래스에서 태권도와 미술을 공부하는 아부우  
1-2. 교복입은 14살 아부우



2-1

2-1. 교복입은 15살 피터  
2-2. 호프클래스 만형 피터



2-2



## PHILIPPINES

필리핀 다일공동체

**이명현** 필리핀 다일공동체 원장

### 알토란, 울산광역시 대학생 봉사단

울산광역시 대학생 자원봉사팀이 이틀간, 알찬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재미있는 교육과 놀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북돋워주었고, 다양하고도 흥미진진한 공연으로 아이들과 주민들이 열렬히 환호하였습니다. 또, 우리의 오랜 숙원사업인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집풀로 무성했던 빈터를 깨끗이 정비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늘 뛰어노는 넓은 농구장을 보수하여 새 단장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도 “살라맛 뽀~”(감사합니다)를 외쳤습니다.

어디 그 뿐이었겠어요? 밥퍼봉사는 물론이고, 어린이 비타민과 학용품, 유치원 소풍비도 지원해주었습니다. 비록 이

틀간의 봉사였지만, 봉사자들이 흘린 땀방울들이 우리 아이들과 주민들을 너무나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준비해온 ‘태권무’와 플래시몹 ‘아리랑’ 공연 때에는 울컥 눈물도 솟구칠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흐뭇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 봉사팀은 울산광역시에서도 평소에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잘 하는 우수한 대학생들로서 특별히 선발되어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첫날부터 봉사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알토란 같은 대학생들을 보내주신 울산광역시 김기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필리핀 다일공동체까지 직접 동행하며 함께 봉사하신 정덕중 주무관님, 자원봉사센터의 정보광 국장님과 강호근 팀장님, 굿모닝여행사의 김판기 대표이사님까지,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CHINA

중국 다일공동체

**이희준** 중국 다일공동체 원장**미나의 결혼**

어린이집에서 성장한 고미나의 결혼식이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너무 멀리서 진행된 결혼식으로 모두 참석할 수는 없었지만 중국 다일공동체 가족들은 마음을 다해 축하했습니다. 독립해서 외지에 있는 언니, 동생들이 참석은 못해도 여기 저기서 축의금을 보내오는 모습이 참 흐뭇하게 합니다. 어릴 적에도 말썽 한번 없이 동생들을 잘 돌보며 늘 깔끔하고 얼굴이나 마음이 곱디 곱기만 했던 미나가 잘 성장해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뜨거워지며 눈물과 함께 깊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 예쁜 가정을 만들어가는 미나의 앞길을 축복합니다!

**훈춘시 민정국 방문봉사**

방학을 맞아 다일어린이집의 관할 부서인 훈춘시 민정국 복리과 전 직원분들이 오셔서 직접 정성껏 만두를 만들어 아이들에게 점심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사랑과 정성을 담아 손으로 직접 빚은 만두라 그런지 얼마나 맛있던지... 아이들이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일과 간식도 한 아름 들고 오셨습니다. 저희 다일어린이집을 관리, 감독하는 부서에서 오히려 늘 관심과 사랑으로 지원해주시니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민정국 복리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노트북을 후원해주신 조준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중국 다일공동체의 대학생들을 위해 노트북 후원요청을 부탁 드렸는데 중국 다일공동체의 초창기부터 오랜 인연이 있으신 조준영 교수님께서 노트북 3대를 보내주셨습니다. 중국 다일공동체 설립 때부터 매년 먼저 찾아와 살펴주시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준영 교수님 내외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1. 미나의 결혼식에 참석한 김학용원장, 이희준 원장

2. 만두를 빚고있는 민정국 복리과 직원들





DAIL

다일작은천국  
다일천사병원

### ‘꿈을 이룰 때까지’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 ‘다일작은천국’에 입소하여 1년 6개월 넘게 생활했다가 지금은 맹인 그룹 홈에서 자활에 성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7년 전 ‘당뇨병성망막병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하던 중 최근 3년전에 ‘시각장애1급’이라는 장애를 선고 받았습니다.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양쪽 시력을 모두 잃어 일상생활은 물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에 죄책감과 무기력감, 우울증이 한꺼번에 찾아와 삶에 의미를 잃어 자살하려고도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펫 연주자가 꿈이었던 김병\*씨는 음악이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어 이내 밝은 미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시력은 잃었지만 꿈만큼은 잃고 싶지 않다며 입소기간 내내 ‘서울다일교회’ 뒷마당을 찾아 트럼펫을 연주하곤 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으로 생활주거지를 옮기게 된 김병\*씨는 그곳에서 교육도 받고 안마사 기술까지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안마사로 취업까지 되어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더불어 트럼펫 연주자로 공연도 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병\*님은 말합니다. “내가 가장 힘들고 나락으로 떨어져 자살을 꿈꾸었을 때 ‘다일 작은천국’은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디딤돌의 역할을 해준 곳이다.” 라고…**



### 스마일 할머니 만세!

이젠 대한민국의 어엿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스마일할머니! 드디어 3월 중순에는 주민등록증을 75년만에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되는 이종\*(스마일할머니)님이 연신 눈에는 눈물이 입가에는 미소가 넘칩니다.

자신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해 밥퍼 ‘최일도목사님’께서는 당신의 최씨 성에 이름은 ‘연선’으로 밥퍼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결정하여 한때는 ‘최연선’으로 불리다가 한 스마일 할머니입니다. 이제는 가까스로 옛날의 희미한 기억으로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밥퍼를 11년간 꾸준히 이용하시면서, 늘 웃고 계셨기에 이토록 아픈 과거가 있을 줄은 몰랐었습니다. 대형트럭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신분증이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의해 응급처치만을 받고 되돌아온 스마일할머니의 인생은 2013년 5월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나타내지도 못하고 눈치로만 75년을 사신 스마일할머니를 돕고자 다일작은천국은 병원과 관공서를 일일이 다니면서 1년 6개월만에 주민등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할머니의 창분창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최종판결이 지난 1월 26일에 있었습니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밥퍼와 깊은 우정을 나누는 박승철 헤어스튜디오 직원들께서 밥퍼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동안 각 지점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주신 후원금과 함께 찾아주시니 감동도 두 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원공과대학교

해마다 1월이면 밥퍼를 오시는 두원공과대학교에서 올해는 이를 연속으로 봉사를 오셨답니다. 두원 공대는 한 해를 꼭 밥퍼 봉사로 시작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마음 계속 유지되어 밥퍼와 더욱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길 소망합니다.



오파스넷

매년 밥퍼를 찾아오시는 오파스넷팀입니다. 연말연시에 꼭 밥퍼 봉사로 중무식, 시무식을 하시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모를 만큼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자주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논

밥퍼의 든든한 정기봉사팀, 캐논팀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척척 맡은 구역을 능수능란하게 하지만, 마음의 감동은 오실 때마다 두 배, 세 배 커진다고 하십니다. 앞으로는 잘 부탁드립니다!





재현고등학교

재현고 학생들이 이틀에 걸쳐서 봉사를 왔습니다. 왠지 낯 발랄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봉사가 시작되자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정성스레 어르신들을 섬기는 모습이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학생들! 꼭 다시 만나요~



대구 경일여자중학교

대구에서 밥퍼 봉사를 하기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한 경일여중 학생들입니다. 봉사동아리 친구들인데 어찌나 아무지도 꼼꼼하게 봉사하는지 밥상공동체 가족과 스텝들 모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답니다. 경일여중이 최고야!



삼성 서울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직원과 가족들이 밥퍼 봉사에 참여하셨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 힘들어하셨지만 얼굴에 미소만은 가시지 않았습니니다. 밥상공동체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이 너무 기쁘다며 뒷정리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돌아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임직원분들이 오셨습니다. 비록 일은 힘들었으나 다함께 김치도 썰고 배식도 하다 보니 어느새 모두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정성스럽게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직원 분들 모두가 열정 가득한 시간이었다고 꼭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봉사자들이 모두 생쌀이 운동에 참여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규 후원회원 및 물품 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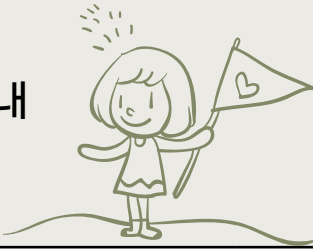
<p><b>신규후원회원</b> 14.12.20~15.02.15</p>	<p>(주)뭇된고양이, (주)씨엠파트너스건축사사무소, (주)이연에프엔씨, (주)인천약품, (주)트리니티소프트, (주)한일이에스티, 0222146876, 김민정, 1월선교지원비, JW DE LONG, LK멀티서비스, 가위바위보떡볶이, 강보라, 강봉규, 강신자, 강욱형, 강윤영, 강지유, 강지혜, 강태훈, 고미수, 고미진, 고인옥, 구름산초등학교3-3, 군산반석교회중,고등부, 군인공제회, 권성자, 권영이, 권윤정, 권은경, 권지수, 기아자동차신평대리점, 길영민, 김경미, 김경섭, 김경섭, 성천교회, 김경실, 김경희, 김규도, 김기준, 김난순, 김동일, 김민정, 김민정, 김민주, 김빛나, 김상희, 김성원, 김성화, 김세영, 김수정, 박종익, 김순영, 김연주, 김연희, 김영서(민윤혜), 김영석, 김영이, 김을동, 김인화, 김정숙, 김종삼, 김종영, 김주경, 김주경,박준덕, 김진태, 김진희, 김찬승, 김태성, 김한솔, 김행민, 김현아, 김현진, 김혜숙, 김호진, 김호순, 김희중, 나눔, 나눔콘서트, 나영, 남승우, 남영환, 남한나, 남현주, 남혜진, 넥스트리인터넷(주), 노은, 노태현, 류미경, 류혜경, 류효림, 모모제인친구들, 무명(풀무원중앙지점), 문나래, 문선영, 문옥희, 문유원, 문집사, 문형숙, 미광교회, 민정원, 박금숙, 박승철강남점, 박승철사상이마트점, 박승철상록수점, 박승철안산홍플러스점, 박승철역곡점, 박승철용인치안구청점, 박승철원주점, 박승철타임스퀘어점, 박애실, 박예은,박지은,박대은, 박원대, 박은주, 박지연, 박찬욱, 박창재, 박초이, 박한별, 박해원공고, 박혜주, 박희명, 반포자이유치원, 백광진, 백미선, 백이나, 백현민, 변석준, 복호정교회속, 사단법인외식프랜차이즈진흥원, 삼성서울병원진단검사의학, 사론교회, 서울다일교회하여선교회, 서울모교회, 서재인, 석인호, 선고은, 설대호, 소망교회사회봉사부, 손경옥, 손남목, 손보경, 손지민, 손지희, 손창기, 송미순, 송현준, 수원하나교회, 신경원, 신기욱, 신미정, 신세현(신성욱), 신승환, 신용자, 신은미, 신은혜, 신일공업허복희, 신지환, 신해진, 심경선, 심성보, 심영근, 씨제이이엔엠 주식회사, 안은경, 안재림, 안재인, 안정희, 안현희구름산초3-2, 양병연장로, 양성우, 양영은, 어윤선, 여재민, 염기덕보람염해자, 영문교회, 예경수, 오광근, 오택호, 용두푸꾸미, 우리은행의정부지점, 유병천(와인의향기), 유정민, 유정희, 유진영, 윤덕민, 윤병숙, 윤재균,유영이, 윤희선, 이가진, 이건희삼, 이경숙, 이경순, 이계민, 이귀순, 이기선, 이기운, 이나현, 이동욱, 이득용, 이루마, 이미선, 이미영, 이범호, 이상규, 이상기, 이상남, 이상민, 이상봉, 이서복, 이서준, 이석일, 이선형, 이성빈, 이성은, 이소욱(153건설), 이순자, 이영성, 이영희, 이영희, 이완영, 이용훈,박선영, 이우영, 이유나, 이유정, 이윤석, 이은서, 이인숙, 이재문, 이재현, 이정민, 이정우, 이정운, 이정희, 이종우, 이주대, 이주호, 이준석, 이진선, 이창표, 이현주(장성훈), 이효정, 이희은, 임미자, 임성민, 임신애, 임지영, 장고은, 장근철, 장동혁, 장수현, 장원배, 장진승, 재현고등학교, 전미애, 전상훈, 전선희, 전희재(전관석), 정덕진, 정상수, 정승열범무사사, 정영숙(동산교회), 정예지, 정인숙, 조경민, 조미선, 조상분, 조서윤, 조수빈, 조종일, 조춘자, 주네팔, 주숙현, 주식회사 참이맛, 주인경, 주혜준, 진난주, 진솔, 진솔(황애리), 진영, 차혜련, 천세연, 천은희, 최광균, 최광숙, 최명호, 최무룡, 최미라, 최병규, 최선희, 최수연, 최영란, 최영미, 최완수, 최우섭, 최의열, 최정례, 최지영, 최지은, 최희원, 추범석, 추진옥, 티월드, 한동호, 허수영, 허을선, 현해연, 혼다코리아(주), 홍경연, 홍성숙권사, 홍성희, 홍인중, 황선희, 회복하는교회</p>
<p><b>밥퍼나눔운동본부</b> 14.12.20~15.02.15</p>	<p>경흥농장 굴 400box, 국립외교원 윤덕민원장님 쌀 890kg, 금란요리학원 쌀 400kg, 금파 쌀,과일·고기, 동아쏘시오홀딩스 박카스 2000개, 드림재단 빵 7200개, 무명 두유 47box, 무명 쌀 180kg, 문형숙 쌀200kg, 방산시장(영남회) 100kg, 뷰티플마인드 쌀 180kg, 삼오종합식품 간장·고추장, 서일석 라면·쌀, 성부기업 난로 5개, 성수교회 쌀 80kg, 송일국 쌀40kg, 아세나글로벌소싱 의류 18box, 장숙자 쌀 40kg, 장안제일교회 단무지 8box, 한경철 굴 5box, 한국자동차제조조합 호두과자 2048개, 한국장류협동조합 된장·고추장·간장·청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쌀 80kg, 경흥농장 굴 400box, 국립외교원 윤덕민원장님 쌀 890kg, 금란요리학원 쌀 400kg, 금파 쌀·과일·고기, 동아쏘시오홀딩스 박카스 2000개, 드림재단 빵 7200개, 무명 두유 47box, 무명 쌀 180kg, 문형숙 쌀 200kg, 방산시장(영남회) 100kg, 뷰티플마인드 쌀 180kg, 삼오종합식품 간장·고추장, 서일석 라면·쌀, 성부기업 난로 5개, 성수교회 쌀 80kg, 송일국 쌀40kg, 아세나글로벌소싱 의류 18box, 장숙자 쌀 40kg, 장안제일교회 단무지 8box, 한경철 굴 5box, 한국자동차제조조합 호두과자 2048개, 한국장류협동조합 된장·고추장·간장·청국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쌀 80kg</p>
<p><b>다일천사병원&amp;작은천국</b> 14.12.22~15.02.15</p>	<p><b>후원금</b> /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요셉의사람들, 채창기, 평안L&amp;C, 한우리교회 <b>후원물품</b> / 게스트하우스(설령탕재료, 족발), 손병윤(빼빼로과자, 사탕set), 임해현(주님의교회)(양말 및 수건), 채움터(포켓수첩 150box), 평안L&amp;C(굴3box)</p>

#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해외 분원 후원명단은 현지에서 직접 후원하신 분들입니다.

<b>캄보디아일공동체</b> 14.12.20~15.02.15	<p>후원금 / E푸른치과(이인용,송혜란), 감리교 일산동지방 청소년비전트립팀, 강운규,박경진,강건, 경남대학교 총장 박재규, 경인교육대학교, 관동로터리클럽, 권영화, 권현준, 김민규, 김새롬, 김은자, 김정희, 김종호, 김하은, 남궁민, 남울산적십자봉사회(정기수,이규상,박근모), 다일교회, 단원고등학교 해외봉사활동팀(최민지 외 19명), 당진로터리클럽, 대전SMS6기, 더불어꿈, 동주대학 글로벌봉사단 1기, 민명자,오수환, 밀양남부교회, 박윤아, 백태준 성형외과, 분당드림교회, 서산주니어플라톤, 성일교회 단기선교팀, 성일교회 청년부, 성일교회 청소년부, 손인수, 송명선, 시흥복된교회 학생부, 신인자(남시택), 심현서,심은서, 여수벚엘교회, 울산RCY(박정훈), 울산RCY(임종태), 울산로터리클럽(이성규,김석기,최해상,전종필,김광일,박애순,박상준), 울산범서중학교, 울산산돌교회(김여진,김신실), 울산토마토로터리클럽(고주영,전현주,홍규리), 울산토마토로터리클럽(김광희,임종태), 원달수,박용현이대영, 원주찬양교회 단기선교팀, 유광문,유은혜,유은교,신영단, 이가영, 이경애, 이경희, 이그린,이조이, 이능형, 이순애, 이영애, 이향미, 이현주, 익산샘물교회, 인제대학교(총장 차인준), 임지선, 임택규,이규일,임채혁,임채욱, 임피제일교회, 자카르타 한인연합교회, 전주 수정회관(이용일, 오순임), 전주 천양정(권오철, 강정원 외 5인), 정다운, 제갈은,이미옥,제갈민지,제갈민우, 조진호,임유순,조슬기,조은별,조은수, 최수린, 최지원, 충효단, 칠곡군 청소년국제교류단, 카도, 공두, 포항소망교회, 한국교통대학교(총장 김영호),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516단 순천지역대,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동광양중학교,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 사무처장 임성례, 한국은사랑교회, 한연, 한윤주, 한지영, 한현수, 홍정주</p> <p>후원물품 / CIC (의류), 관동로터리클럽(의약품 외), 금호타이어(의류 외), 당진로터리 클럽(의약품 외), 대전 SMS6기(간식), 부산성일교회(의류 외), 분당드림교회(의약품 외), 울산로터리클럽(의류 외), 익산샘물교회(코팅기 외), 전주 천양정(학용품), 조선대학교(의류), 중문클럽 (학용품 외), 코리아트래블(의류 외), 하나투어(학용품 외), 한국은사랑교회(의류 외)</p>
<b>중국다일공동체</b> 14.12.22~15.02.15	<p>후원금 / 4중 7학년12반, 김성재(Obey&amp;Praise), 민경식(북경), 박종근(모자이크교회), 상해 쿤산한인교회, 이숙의(미국 시카고)</p> <p>후원물품 / 권윤경(주4회 간식지원), 무지개개심협회(떡볶이20K), 민정국(전체 아동 점심식사 지원, 과일), 박려나(과일2상자), 영광제빵(빵), 이선하,허준혁(세탁기후원외)</p>
<b>탄자니아다일공동체</b> 14.12.20~15.02.15	<p>후원금 / 오성욱</p> <p>후원물품 / 타다시(의류, 문구류) 김영선(싸인펜, 고무찰흙)</p>
<b>베트남다일공동체</b> 14.12.14~15.02.14	<p>후원금 / A PLUS, ARDITO, LEE KUN JO, MAX VINA, NAHAL, POS-SEA, THANH, CONG, VEGAS, 경인교육대, 기업은행, 김경중, 김민규(김경순), 닥터 카, 대우인터내셔널, 롯데리아, 베텔비나, 보민건설, 사이공드림교회, 사이공한인연합교회, 신한은행, 아리랑화학, 아산상선, 오경숙, 오리온, 윈윈여행사, 이소영, 이정희, 조용우, 조현진(Dream), 주선영, 포스코SOUTH ASIA, 호치민중앙교회</p> <p>모금함 / 기업은행, 대궐 떡 카페, 뚜레쥬르, 우리은행, 참 마트</p> <p>후원물품 / SWEET FACTORY(빵2,200개), VEGAS(쌀600kg, 조미료120set)            어울림(쌀500kg, 라면32box), 통큰소(갈비100인분, 닭죽120인분)</p>
<b>필리핀다일공동체</b> 14.12.22~15.02.15	<p>울산광역시대학생자원봉사팀, 심은진, 이명현</p>
<b>네팔다일공동체</b> 14.12. 21~15.02.15	<p>Buban Timsina, Hymallaya Edu, National Open Coollege, 김용구, 노희관, 박지영전도사님의 학생들, 서울수산교회, 성민교회팀, 순천대 네품팀, 순천대 조대희님, 순화선교단 복음선교관학교 여호수아, 신라대학교, 연세대 글러벌 행정학과, 영락교회대학부, 최양임, 카트만두 한인교회 청소년부, 한성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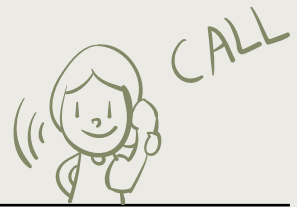
## 후원안내



문의 | TEL. 02-2212-8004 FAX. 02-2243-8005

만원의 행복(월 1만원)	밥퍼나눔운동본부, 천사병원을 비롯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을 위한 후원입니다.	
1:1 해외아동결연(월 3만원)	해외 아동과 1:1 결연을 통하여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해외 아동과 결연을 하시면 결연 아동의 소개서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생쌀이 운동 (Rice Pot Relay)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전역과 어려운 지역, 해외 빈민촌을 돕기위한 캠페인입니다.(36,500원, 365,000원, 3,650,000원)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노숙인 및 무의탁 어르신들께 하루 진지를 대접하는 후원입니다.	
다일천사후원	다일 공동체의 의료지원사업(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해외 보건의료사업, BCP 등)을 위한 후원입니다. 1구좌 100만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만원의 행복	외환은행 131-22-00800-7 외환은행 131-22-00892-9 하나은행 158-910001-02004
	생쌀이 운동(Rice Pot Relay)	국민은행 467737-01-002291 (예금주 : 다일복지재단 생쌀이운동)
	밥퍼나눔운동본부	국민은행 010901-04-037581
	설곡산다일공동체	국민은행 010901-04-064419
	다일천사병원	국민은행 010-01-0975-871 하나은행 158-910002-46204 외환은행 131-22-01134-2
	다일작은천국	국민은행 467701-01-224504
	다일평화의 마을	국민은행 010-01-0619-487
	캄보디아씨엠립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65
	캄보디아프놈펜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78
	베트남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94
	필리핀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42581
	중국 다일공동체	기업은행 017-033086-01-021
	네팔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157448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3964
	우간다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231436
	미주 다일공동체	국민은행 467701-01-053115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40926776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 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미주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원하시는 분은 미주다일공동체 구좌로 송금하시거나 미주다일공동체 홈페이지(dailusa.org)를 통하여 회원가입 후 후원하실수 있습니다.)	

## 국내 · 해외분원연락처



### 다일복지재단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2-8004

### 밥퍼니눔운동본부

130-80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8  
Tel. 02-2214-0365

### 다일천사병원, 다일작은천국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Tel. 02-2213-8004

### 설곡산다일공동체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봉미산안길 330  
Tel. 031-585-2004

### 다일평화의 마을

477-852 경기 가평군 설악면 묵안리  
Tel. 031-568-5004

### 캄보디아 다일공동체

#### 씨엠립 본원

St N°63 Toul Kork Pey Phnom Krom village Siem Reap  
Commune Siem Reap Province, CAMBODIA  
Tel. +855-12-808-861

#### 프놈펜 지부

Angdong Village, Kook Roka Commune, Dong Kor  
District, Phnom Penh City, CAMBODIA  
Tel. +855-12-808-861

### 중국 다일공동체

1433 Hunchunxijie, Hunchunshi, jilinsheng, CHINA  
Dail Childen's House  
Tel. +86-183-4339-7009

### 네팔 다일공동체

#### 카트만두 본원

Manohora 16 Madhayapur thimi city Bhakthpur, NEPAL  
Tel. +977-98494-58330

#### 포카라 지부

Shree Bal Sahara lower secondary School  
Pokhara-Submunicipal city Ward no9  
ShivaTol Kaski Pokhara  
Tel. +977-98607-76685

### 우간다 다일공동체

P.O Box 85 Kisubi, UGANDA  
Tel. +256-77107-2382

### 필리핀 다일공동체

Lot 15, Blk C-37-D, Brgy.Malia, GMA Cavite PHILIPPINES  
Tel. +63-927-560-7346 / 070-8220-3278

###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White House No 10  
Dar Villa(Next to Mayfair Plaza and Oil Com at  
Mikochemi A)  
Plot No. 2, Block D, Low Density Msasani Village,  
Dar es Salaam, Tanzania  
Tel. +255-786-740-003

### 베트남 다일공동체

R4-51 Hung Gia2, PMH, Tan Phong Ward, District7,  
HCMC, VIETNAM  
Tel. +84-12-6317-7912 / 070-8220-6160

### 미주 다일공동체

2976 buford hwy Duluth GA 30096, USA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44  
www.dailusa.org

### 캐나다 다일공동체

1811-270 Scarlett Rd. Toronto, ON M6N 4X7, CANADA  
Tel. +416-824-4831



**나눔**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입니다.

생살이 365일 **아이가**

생살이운동은 무의탁노인과 독거노인, 북한 전역과 해외 빈민촌까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나눔캠페인입니다.

오랜 정성과 땀으로 길러진 쌀로 **소중한 생명**까지 기를 수 있습니다.  
생살이 후원을 통해 소중한 생명을 키워주세요.

🌿 3만 6천 5백원

🌿🌿 3십 6만 5천원

🌿🌿🌿 3백 6십 5만원

-----• **나눔계좌** 467737 01 002291(국민) 다일복지재단(생살이운동)

-----• **문의** 다일복지재단 02 2212 8004 **반려나눔운동본부** 02 2214 0365

출 페이지 [www.dail.org](http://www.dail.org)



1 우측의 생쌀이카드에 본인의 이름과 지명할 사람의 이름을 씁니다

생쌀이카드 뒷면의 [후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생쌀이카드와 함께 인증샷을 찰칵!



생쌀이카드 앞-뒷면을 [다일복지재단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입금하면 완료!!



5 SNS에 사진을 올려 친구들에게 홍보합니다

밥퍼로 방문해서 직접 쌀을 부어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방문 전, 밥퍼로 연락주세요~  
☎ 02 2214 0365



참여하기

**Da일** 다일과 카톡친구가 되는 방법!



1하! 카카오톡 앱의 ID찾기에서 [dailwf]로 찾아 친구추가

2물!!

카카오톡 앱의 QR code로 빠르고 쉽게 친구되기

#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Joyful  
기쁨



Together  
함께



Sharing  
나눔



Life  
생명





DAIL

나

생쌀이운동에  
RICE POT RELAY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주자로

,

이어갑니다.



# 생쌀이운동 후원신청서

RICE POT RELAY

## 후원내역

### 결제방법

계좌이체(국민은행 467737-01-002291 다일복지재단(생쌀이운동))     카드(dail.org카드결제)

### 후원금액

36,000원     365,000원     3,650,000원     기타 \_\_\_\_\_ 원

## 후원회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남/여)

연락처

SMS수신동의

이메일

이메일수신동의

주소

우편물수신동의

## 기부금영수증

주민등록번호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신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정기부금단체이며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한 기부금 영수증발급 및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34조의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부금영수증 서식(소득세법 별지 제45호 의 2서식)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및 국세청 신고를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명시된 <주민등록번호 예외적 처리허용 사용>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서명)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등록 및 연말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다일공동체 후원신청서

원하시는 후원란에 체크해 주세요

## 정기후원

<input type="checkbox"/> 만원의행복 월 1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일대일아동결연 월 3만원 _____ 명	<input type="checkbox"/> 생쌀이운동 36,500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정기후원 월 _____ 원		

## 일시후원

<input type="checkbox"/> 생쌀이운동( <input type="checkbox"/> 36,500원 <input type="checkbox"/> 365,000원 <input type="checkbox"/> 3,650,000원 )	<input type="checkbox"/> 전세계 밥퍼 1일 배식비(700만원)	<input type="checkbox"/> 밥퍼 1일 배식비(280만원)
<input type="checkbox"/> 다일천사후원(1구좌 100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다일평생천사후원(1구좌 1,004만원) _____ 구좌	
<input type="checkbox"/> 다일아너스클럽회원(1구좌 1억원)	<input type="checkbox"/> 유산 10% 기부회원	

## 후원회원 정보

이름 \_\_\_\_\_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남, 여)

연락처 \_\_\_\_\_

이메일 \_\_\_\_\_  SMS수신동의

주소 \_\_\_\_\_

우편물 발송  우편물 미발송

## CMS 자동이체 동의서

출금은행 _____	예금주 _____
계좌번호 _____	이체 희망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예금주 주민등록 앞번호 _____	

## 기부금 영수증

주민등록번호 \_\_\_\_\_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기재해주시 주민등록번호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등록됩니다.

CMS출금 이체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금융거래정보(생년월일,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 이체하는 때로부터 해지신청을 할 때까지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거래법"에 따라 동의합니다. 다일복지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후원금은 소득세 법 34조에 따라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후원자 정보 및 결제 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년 월 일

이름 \_\_\_\_\_ (서명)

◇ 위 내용은 후원자 정보 등록 및 연말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135 만부 베스트셀러  
 “밥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작가  
 진정한 나눔의 아이콘!  
 “밥퍼 목사 최일도” 신간



# 7년을 하루같이

7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편지를 쓰고  
 2,555통의 사연을  
 뜻과 정성 다해 부쳐  
 독자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감동 휴먼 스토리

가격 / 권당 12,500원 / 두권 한세트 25,000원

보내시는 분

\_\_\_\_\_

\_\_\_\_\_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발송유효기간 2014.02.14 ~ 2016.02.13
동대문우체국승인 제40242호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다일복지재단 6층  
 후원안내 | 02.2212.8004 팩스 | 02.2243.8005  
 홈페이지 | www.dail.org

# 다일영성생활수련

힐링 여행, 다일영성생활수련을 통하여  
이 시대에 우울증, 중독, 가출, 자살, 가정불화 등으로 고통받는  
청소년, 부부, CEO, 교수, 목사, 정치인, 연예인 등  
각 분야의 사람들과 가정을 치유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 최일도 목사

다일공동체 대표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천사병원 병원장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교수



## 일정

###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

163기 4월 27일 ~ 5월 1일(4박 5일)  
164기(미주) 5월 18일 ~ 22일(4박 5일)  
165기 6월 15일 ~ 19일(4박 5일)

“다일 수련을 통해 천국의 잔치를 맛보았습니다. 치유와 회복, 자유와 기쁨을  
새롭게 체험한 저에게 이 세상은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류승범(영화배우)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으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  
수련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전화 031.585.2004, 010.6375.8004  
홈페이지 [www.dail.org](http://www.dail.org)

입금계좌  
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 다일공동체

# 후원방법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다일공동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용카드와 CMS로  
다일공동체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www.dail.org](http://www.dail.org)



전화로 신청하기

다일복지재단 전화 02.2212.8004로  
후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2212.8004



우편으로 신청하기

소식지 안쪽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30-85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작성하신 후원신청서의 사진을 다일복지재단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다일복지재단과 카카오톡 친구되기

- 1.ID로 등록: dailwf
- 2.QR코드로 등록



모든 후원금은 연말 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